

장흥, 전남도 육성 신품종 멜론 시범재배 성공

〈그랑프리〉

다음달 본격 출하... 여름철 시설하우스 활용 가능

장흥군이 전라남도 육성종인 신 품종 멜론 '그랑프리'의 시범재배에 성공했다. 황록색 과육의 이 신 품종 멜론은 다음달 하순 본격 출하될 예정이다. 여름철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29일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

상으로 추진한 전남도농업기술원 육성 신 품종 멜론 품종 '그랑프리'의 시범 재배가 성공, 여름철에도 시설하우스를 놓리지 않고 연중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회진면 대리이재열(47) 농가에 시범포를 조성,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 품종 멜

론인 '그랑프리'를 5월 중순 시설하우스 0.5ha에 8700주를 심었다. 이후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무농약 친환경재배로 재배, 오는 8월 하순 수확을 앞두고 있다.

멜론 신 품종인 '그랑프리'는 멜론 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흰가루병에 강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황록색 과육이며 육질이 부드러워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적합한 과일로 각각

을 받을 전망이다. 시범재배에 나선 이씨는 "그동안 겨울철 작기인 방울토마토 수확 후 가을철 작물재배까지 시설하우스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그랑프리 시범재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농가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랑프리'는 개당 무게가 1.8~2kg까지 나가며 작황이 좋아 농가당

4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제해신 연구개발과장은 "이번에 이루어진 시범재배 성공사례를 활용해 시설하우스 농가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yongki@kgj.com



원시체험 하러 고흥 시호도로 오세요

23억 들여 원시 섬 조성

음악·극기체험로 운영

나로호를 쏘아올린 고흥에 가면 원시시대 인간의 삶까지 체험할 수 있다. 고흥군은 29일 "최근 무인도인 고흥군 동이면 시호도에 조성한 원시 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개장식(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은 동이면 덕흥리 산 249-3번지에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됐다. 원시음막 8동, 공동취사장 1동과 체험시설로 햇목, 가금류 사육장, 텃밭, 극기체험로, 고기잡이 체험장 등으로 꾸며졌다.

군은 원시체험의 섬 운영 1단

계인 올해는 5시간짜리 원시체험 프로그램, 제2단계인 2014년은 1박 2일을 체험기간으로 하는 시호도 탐사 프로그램, 제3단계인 2015년 이후는 2박3일간의 무인도 생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용요금은 입장료 5000원 체험료 1만5000원이다. 최근 개장식은 체험학생 80명 등 모두 200여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불과 물을 만드는 과정을 선보였으며 원시인 춤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고흥군 관계자는 "전국 유일의 무인도 원시의 섬 여행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와 원시가 조화를 이루는 즐겁고 유익한 관광 여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보성향토시장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 다채



지난 27일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열린 토요장터를 찾은 가족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전라남도 최초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받은 녹차골보성향토시장은 기존 2·7일 오일장과 함께 토요장터도 열어 공연행사와 천연염색, 점토를 활용한 그릇 만들기, 한지공예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장성 축령산서 '산소 축제' 열린다

다음달 10~11일 개최

숲속 뷔페 등 이색체험

전국에서 가장 넓은 편백림을 보유한 장성 축령산에서 한 해 동안 피톤치드가 가장 많은 나오는 시기인 8월에 산소를 주제로 한 이색적인 축제가 열린다.

장성군은 29일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6회 장성 축령산 산소축제를 개최, 총 32개의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삼면청년회가 주최하고 장성 축령산 산소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가자 생명의 숲! 건강의 숲! 치유의 숲으로'라는 주제로 소규모 공연과 축령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선보이는 향토음식점과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숲속 뷔페와 슈퍼, 카페도 운영한다.

산소축제 관계자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산소축제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다채로운 체험도 즐기고 일상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령산은 779ha의 편백나무와 삼나무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 향으로 전국 최고의 삼림욕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축령산둘레길과 KTX 산소열차 등을 통해 연 70만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고려청자 빛의 외국 어린이

자기 모양을 만들어보고 있다.

강진청자축제 개막 3일째로 접어든 29일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진군 대구면 강진청자요지를 찾은 외국 어린이가 물리체험 부스에서 도자기 모양을 만들어보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여수시민에 호텔·리조트 이용료 최대 60% 할인

市·11개 관광업체 협약

여수시와 여수지역 관광 관련 업체들이 여수시민들에게 최고 60%까지 이용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여수시는 29일 "최근 일상해양산업(주)의 선리조트,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 전남관광(주), 나르사관광호텔, 히든베이호텔, 여수해양관광개발, 유개슬관광호텔, 비엔비치 관광

호텔, 여수관광호텔, 국동크루즈 유람선, 한려수도 등 11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광 관련 업체들이 여수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업체 종사자의 주수지를 여수로 이전하는 등 지역 인구유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시는 이들 사업자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수시민들은 아

쿠아플라넷, (주)한려수도 거북선 유람선, 국동크루즈유람선, 비엔비치 관광호텔 등을 이용할 때 20%를, 디오선 워터파크·사우나, 여수관광호텔 등은 각각 30%, 히든베이호텔 40%, 유개슬 관광호텔이 5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나르사 관광호텔은 주중 20%, 주말 15%, 경도리조트 콘도는 주중 60%, 주말 40% 할인을 제공한다. /여수=김침화기자 chkim@

멘토에 갈증나고 힐링에 목마르는 시대!

그들을 위한 명쾌한 정답 프로그램!

명랑해결단

매주 월요일 밤 11시

이운석, 이유리, 서경석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 A

새 얼굴

“군민과 소통 강화 군정 이끌터”

고영윤 영암군부군수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모든 행정의 가치관 기준을 군민 뜻에 두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고영윤(56) 신임 영암 부군수는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군정을 이끌고 외지인들의 방문을 늘려 지역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그는 “월출산의 정기를 받아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을 배출한 기의 고장 영암군에서 근무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들과 스스로 친절한

동을 전개해 전 군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고 부군수는 장흥 출신으로 지난 77년 공직에 임료, 전남도 기획조정실 여수박람회 지원관과 경제산업국 국제협력과장을 거쳤으며, 부인 김영희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해양수산 용어사전

여수시, 전직원에 배포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해양수산 용어사전'을 여수시청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해양수산 용어사전은 해양정책, 수산정책, 해운물류, 해사안전, 항만 등 총 5개 분야로 분류, 각 영역별 전문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1차 산업인 수산업, 2차 산업인 수산물 가공업, 3차 산업인 해운물류업, 항만·어항 등 SOC 구축,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해사안전 서비스 등 해양수산 전 분야를 망라한 기초 지식과 전문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알기 쉽게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여수=김침화기자 chkim@